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이없는 어르신들

복지부 행정오류로 15개월간 전국 3만9000명에 과지급 광주 2482명 최대 2배 지급... 환수방침에 대상자들 분통

김모(80·광주시 동구 계림2동) 할아버지 부부는 최근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부부가 매달 32만4160원씩 받아 오던 기초연금을 16만2080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달까지는 절반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는 그동안 2배씩 받아온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당분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행정 오류로 지난 15개월간 퇴직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지역연금자에게 기초연금을 과지급

해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복지부가 과지급 기초연금 환수 방침을 밝혔을 때 일선 자치구에는 대상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구도 세부 지침 없이 과지급 여부를 파악하려는 복지부의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만 2482명에게 기초연금을 관련법보다 많게는 2배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 별로는 북구가 816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535명, 남구 487명, 광산구 356명, 동구 288명 등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만9000여명에 이른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지급하는 연금으로, 1인 가구에는 최대 20만2600원, 2인 가구에는 32만416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지역연금 대상자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50%를 주도록 돼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명단을 잘못 파악해 기초연금의 50%만을 지급해야 할 지역연금 가입자들에게 많게는 100%를 지급하

면서 발생했다. 또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지역연금 대상자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는 이달 중순께 대상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상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복지부가 정확한 환수 지침이나 매뉴얼을 보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할아버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연금이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내놓으니 황당하다.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소통 위한 더불어 함께 걷기 호남대 주최로 열린 '더불어 함께 팀 걷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시민 등 1000여명이 27일 오후 호남대~송산유원지까지 7.5km를 짊어 이뤄 걷고 있다. '더불어 함께 팀 걷기 대회'는 호남대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함양 및 배려·소통·협동을 통한 팀워크 향상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완주한 팀원들에게 모두 74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대 교수회 88% "2순위 후보 반대"

비대위 구성 대응·시민단체도 비판...총장 임명 파문 확산

순천대 교수들이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총장 임명 문제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부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져가고 있다. 순천대교수회는 27일 정부의 2순위 후보 총장 임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26일부터 이틀간 재적 교수 307명 중 214명이 투표에 참가, 190명(88.8%)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찬성 입장을 낸 교수는 23명(10.7%)에 불과했다.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의 진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부 결정 철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총장 후보에 1순위로 추천됐던 정순관 교수는 26일 정부 결정에 반발, '총장 임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대학 전체 교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바 있다.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총장 임명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 및 대응 방침을 밝힌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순천대 총장직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순천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총장으로 임용한 박진성 교수의 용퇴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우리 시대에 관철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순천대 총동창회 등은 "2순위 후보였던 박진성 교수의 총장 임명도 합법적인 행위"라며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에서 올 들어 세 번째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지진센터는 지난 26일 밤 11시29분께 완도군 남남동쪽 26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8월1일 구례군 북쪽 13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감지됐고, 앞서 2월3일 여수 거문도 남남동쪽 52km 해상에서 2.1의 지진이 감지됐다. 한편, 올해 한반도에서는 모두 38차례 지진이 감지됐고, 제주 인근 해역에서만 8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김경민기자 kki@

완도 규모 2.1 지진 전남 올들어 세번째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9 해질 17:43
달돋이 18:32 달질 07:17

아침기온 '뚝'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9/18	보성	구름많음	7/17
목포	구름많음	11/17	순천	구름많음	9/18
여수	구름많음	11/17	영광	구름많음	10/18
나주	구름많음	7/18	진도	구름많음	9/17
완도	구름많음	11/17	전주	구름많음	8/18
구례	구름많음	8/17	군산	구름많음	8/17
강진	구름많음	9/17	남원	구름많음	6/17
해남	구름많음	10/18	축산도	구름많음	13/17
장성	구름많음	7/17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3.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보통
산불	낮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13	07:32
	14:47	20:00
여수	밀물	썰물
	09:27	03:00
	21:41	15:26

◇주간 날씨

29(목)	30(금)	31(토)	11/1(일)	2(월)	3(화)	4(수)
☀	☀	☀	☀	☀	☀	☀
9/17	9/14	7/14	6/14	7/17	7/17	7/19

6년만의 10월 황사

27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 황사가 관측됐다. 10월 황사 관측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으로, 지난해에는 11월에 황사가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관측된 황사 농도는 전주 160 μg/m³를 최고로, 광주 118 μg/m³, 축산도 112 μg/m³, 진도 115 μg/m³ 등이다. 기상청은 황사 등급을 '열은 황사'(0~399 μg/m³), '짙은 황사'(400~799 μg/m³), '매우 짙은 황사'(800~ μg/m³ 이상)로 나누고,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μg/m³를 넘어 2시간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를, 800 μg/m³ 이상이 예상될 때 '황사경보'를 내린다. 기상청은 28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열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7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28일에는 일부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 분포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 역사·사회 교과서도 "국정화 반대"

오늘 기자회견...전교조 내일 시국선언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대 교수들에 이어 전남지역 역사·사회과 교사들도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지역민들도 대규모로 반대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 역사·사회과 교사 253명은 28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참석자들은 또 대안교과서도 개발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한국사 국정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내놓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9일 한국사 국정화에 따른 시국 선언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정화 반대 전남도민 모임 등도 30일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정화 반대 운동을 준비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승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